

“나는 이제 우리 마을의 건강 전도사 !!”

경북 '도민건강가꾸기사업'에서
폐암 조기발견, 건강 회복한 추종호씨



◀30

▲ 폐암을 조기발견 치료한 추종호씨 부부의 건강한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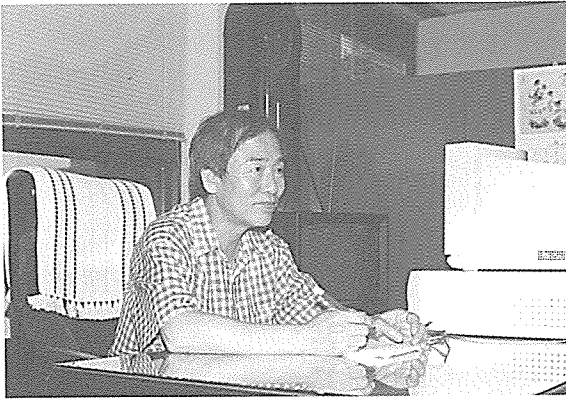
건강과 질병. 그게 그렇다. 나는 항상 건강하고, 암 같은 질병은 다른 사람의 일이라고 생각하기가 쉽다는 얘기가. 그런데, 좀더 깊이 생각하고 자신의 일상을 주의깊게 살펴 본다면 그게 결코 남의 일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 나에게도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는 것이 질병이고, 언제 발견하고 또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건강과 질병의 고통 사이를 넘나들게 된다.

평소 건강이라면 누구보다도 자신이 있었던 추종호씨(경북 경산시 자인면 계림리 146). 그는 40여 년간 거의 매일 소주 한 두병과 담배 한 두갑씩을 마시고 피웠지만, 건강이나 일상 생활에 별다른 지장없이 생업인 농사에 전념하며 살아왔다. 물론 건강검진을 받아본다거나 아파서 병원에 가본 일도 없다.

그러던 그가 혈압관리를 위해 우연히 경산시 자인면 보건지소에 들른 것은 '97년 가을의 일

이었다. 추종호씨는 당시 보건지소에 근무하던 황혜숙씨의 권유에 따라 경상북도가 사망원인 중 제일 높은 암의 조기발견 및 적기 치료로 도민 건강증진 향상을 위한 “도민건강가꾸기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한 폐암 검진을 받게 되었다.

검사 당일 경산시 보건소 담당자와 한국건강관리협회 경북지부 의료진의 안내로 객담검사와 X선 검사를 받았던 그는, '요즘같이 모든 것이 과학적으로 발



▲ 주민의 편익을 먼저 생각하라는 공직자의 봉사정신을 강조하는 심문보 보건사업과장



▲ 주민의 건강을 위한 일이라면 밤·낮을 가리지 않는 경산시 보건소 황혜숙씨

달된 사회에서 초정밀 검사 기계로도 암을 발견하기 힘든 마당에 이렇게 간단한 검사가 무슨 암을 발견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가졌었다고 한다.

「검사를 받은 지 보름쯤 후에 황혜숙씨로부터 폐에 종양이 의심되니 큰 병원에 가서 재검진을 받아보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특별히 아픈 곳도 없고 항상 건강을 자부하던 터라 제가 폐암에 걸렸는지도 모른다는 것은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니다. 또 검사에 대해서도 크게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오진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1개월이 지나도록 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추중호씨는 당시를 이렇게 회고했다.

그러나 항상 지역주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지소 담당자들의 밤낮없는 설득과 가족들의 성화에 추씨는 고집을 꺾고 가까운 경산시 어느 병원에서 혈액·X선·CT검사 등 정밀검사를 받았다. 그러나 그 병원에서 는 결핵인지 암인지 확실한 진단을 내릴 수 없다고 하여 그는 다시 대구 영남대학병원에 입원하

여 본격적인 정밀검사를 받았다. 여기서 그는 초기 암이라는 최종 진단을 받게 된다.

‘암이라고 하면 장관·박사·의사 같이 돈과 권력이 있는 사람들까지도 다 죽는데, 촌사람을 어떻게 살리겠어.’

남편의 암 진단에 너무 놀란 정내남씨는 이런 생각에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한다.

「추중호씨의 경우, 초기에는 거의 증상이 없어 발견하기가 어려운 폐암을 조기에 찾아냈기 때문에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완치될 수 있다」는 담당의사의 이야기에 많은 위안을 받고 희망을 갖게 된 추씨는 그때부터 투병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병원에서 수술과 항암치료를 성공적으로 받고 2년 여 동안 꾸준히 관리를 해, 이제는 건강도 완전히 되찾았고 예전처럼 농사를 지으며 누구보다도 열심히 생활하고 있다.

건강하다는 자신감 만으로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을 가졌다가 큰 경험을 했다는 추씨. 이제는, 모든 병이 조기에

만 발견되면 자신처럼 얼마든지 완치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고 마을 사람들에게 정기적인 건강검진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마을의 건강전도사로 변신했다고 한다.

「폐암 발견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저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주민건강관리를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경산보건소 심문보 보건사업과장님, 성병목 계장님, 그리고 황혜숙씨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평생을 잊지 못할 고마운 분으로 기억하며 살겠습니다.」

추씨의 이야기를 들으며 일선 보건소와 한국건강관리협회의 긴밀한 업무 협조, 능동적인 업무처리가 주민 건강증진에 얼마나 중요한가를 새삼 깨닫게 되었다.

추중호씨는 현재 낮에는 농사를 짓고 밤에는 부업으로 수위 생활을 하면서 가끔씩 손자·손녀에게 용돈을 주는 멋진 할아버지로, 부인·가족과 함께 누구보다도 건강하고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72